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6·13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 낙선 소감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전국 12개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촛불민심에 힘입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압승이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대구시장과 경북 도지사는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는 무소속이 당선되고 부산 울산, 경남 도지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14개 광역단체장 중 11곳을 휩쓸었다.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이 휩쓸었다. 1960년 4월민주혁명 후에 치른 선거에서 민주당 압승 이후 드문 사례이다.

자로 등록하고 5월 30일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했다. 조배숙 민주당 당대표, 정대철 상임고문, 박지원 전 민주당 당대표, 정호준 서울시당 위원장, 서울시내 지역위원장 등 많은 분들이 개소식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다. 전정배 전 당대표, 장병안 원내대표, 유성열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임향순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총재 등 많은 분들이 축하 화환과 꽃분을 보내 주었다.

6월 6일 노원선관위에 등록한 '병 제20호' '노원구병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김윤호후원회'는 후원회장에 이철기 국가원로회의 부의장(전 천도교 교령), 명예회장에 박지원 국회의원이 맡아서 후원금 모금에 도움을 주었다. 당선이 어려운 선거인 줄을 알면서도 그 짧은 기간에 귀한 시간을 내서 찾아와 주시고 큰 액수는 아니지만 후원회 주시고 성원에 주신 은혜는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두고 두고 감사야 할 것이다.

1987년 평화민주당 창당 때부터 중앙당 인권위원회 민원부국장으로 고향 선거구인 전남 영광군과 함평군 각 가정에 한 장짜리 달력을 보낸 후, 1992년 14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공천을 못 받고 서울 노원구에서도 낙선하고 주저앉기만 했다. 선거 기간 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중도 포기하고 싶은 고통과 충동도 강했지만, 아픈

다리를 끌고 끝까지 마라톤을 완주한 기분이었다. 국회의원에 여섯 번, 지방선거에 두 번 떨어지고 이혼 번째 울산시장에 도전해서 당선된 8전9기의 송철호 시장은 인간승자다. 용기를 내서 처음 출마해서 낙선한 이번 선거를 다음을 위하여 요약해 두고자 한다.

첫째, 정당의 공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다. 5월 4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JTBC와 한국갤럽이 5월 7~8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6.4%를 지지율이 나타났다. 조선, 동아, 중앙 등 메이저신문과 지역 언론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후보에 대한 보도가 있을 후인 5월 3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1.8%로 내려갔다.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 공천과 구조, 비담과 언론이 지배한다. 인물이 앞설 때도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이다.

둘째, 국회의원이라는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리를 다루는 일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민낯을 만나게 된다. 인간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선거다. 사람을 움직이는 동인은 학연, 지연, 혈연이 작용한다.

특히 돈 앞에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도 절절히 배웠다. 돈 없으면 살아가기도 힘들지만, 정치는 할 수가 없다. 돈 있다고 모두가 정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이 너무 인색하거나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해서도 정치를 할 수가 없다. 베풀지 않고 풀만 잡으면 설사 신신하게 정치를 시작하더라도 그 끝이 좋지 않다. 나누는 것이 정의다.

셋째, 나 자신의 부족함을 객관화시키고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고통과 감사의 시간이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찾아주고 후원하고 힘을 주신 많은 분들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부족함을 뼈아프게 체험했다. 돈을 안 쓴다고 했어도 수 천 만원이 들어갔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라서 선관위로부터 조금도 보전 받지 못했다. 비싼 학습비를 내고 좋은 공부, 좋은 경험을 한 셈이다.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 나의 삶과 나의 존재, 이웃과 사회, 세상을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얻었다.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자신이지만, 조그마한 소득이다.

우리의 삶은 시간과 공간, 인간 속에서 돈과 지식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엮어가는 종합예술이다. 정치도 밖에서 바라보면 불리하면 말 바꾸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돈 먹고 징역가는 준(準) 사기꾼들의 집합체 같지만, 안으로 들어와서 바라보거나 부딪혀 보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지혜롭게 투입하고 전략투구해야 하는 고난도(高難度)의 종합예술이다. 정치의 변두리에서 서성거리다가 정치의 중심부, 회오리의 한복판에 들어갔다가 나온 진술한 소감이다.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여진(餘震)이 남아 있다.

社說

7월 낙뢰에 신경써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호우로 낙뢰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야외활동을 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낙뢰는 연평균 약 14만5천 차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낙뢰는 연평균의 두 배 이상인 31만6천여 건으로 집계됐고, 7월에만 절반이 넘는 18만4천 544차례 낙뢰가 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낙뢰 피해는 여름에 집중돼 6~8월에 전체의 72%인 384건이 일어났다. 7월에는 132건의 낙뢰 피해가 있었다.

피해 유형은 전자장비 고장이 306건(58%)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158건(30%), 정전 25건(7%) 등의 순이었다.

인명피해는 4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9명(사망 2명), 2011년 2명, 2012년 2명(사망 1명), 2013년 4명(사망 1명),

2017년 4명(사망 2명) 등이었다. 행정부는 이에 따라 낙뢰가 예보되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낙뢰가 칠 때는 자세를 낮춰 건물이나 자동차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이나 들과 등 야외에서 마구름이 끼고 번개가 치면 곧바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산 정상 부근 암벽 위나 키가 큰 나무 아래는 위험하니 주의해야 한다.

등산용 지팡이나 우산, 골프채처럼 뾰족하고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하는 것이 좋다.

천둥·번개가 친 뒤에는 조금씩 움직이지 말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동하는 게 안전하다고 행정부는 전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성 비가 잦은 여름철에 등산이나 낚시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낙뢰 정보와 안전수칙을 미리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Table with 2 columns: 宮殿盤鬱 (Gongdeonbanyeop) and 宮殿盤鬱 (Gongdeonbanyeop). Includes sub-headers like 宮, 殿, 盤, 鬱 and 宮, 殿, 盤, 鬱.

▷ 뜻: 궁전(宮殿)은 울창한 나무 사이에서 서린 듯 위치(位置)한.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벌집 발견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최근 벌집 관련 신고가 상당히 늘어났다. 자칫 생명의 위험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벌에 안 쏘이기 위해서는 접근을 피해야 하는데 청담음료, 수박 등 단 음식을 주위에 두지

않고, 향수, 화장품, 화려한 색깔의 의복도 피해야 한다. 벌이 다가오면 쫓으려 말고, 조심스레 피하거나,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게 좋다.

만약 벌에 쏘이게 되면 우선 환자를 추가적인 벌에 쏘임을 막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이후 벌침을 제거해야 하는데, 신용카드의 모서리로 살살 긁어낸다. 단 무리하게 시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벌침 끝 부분에 남아 있는 벌독이 몸 안으로 더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는 잡아 뽑지 않는 게 좋다. 벌침을 제거한 후에는 2차적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비눗물로 상처부위를 깨끗이 세척한다. 이후에 얼음찜질을 시행하여 부종을 감소시키고 부종이 심할

때는 물린 부위를 높게 한 후 안정시킨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곤란이나 혈압강하 소견이 관찰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쏘인 부위가 붓거나, 통증 등의 국소반응만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박광윤 / 곡성119안전센터 소방위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문화융성' (Cultural Convergence) featuring two women and the slogan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perspectives?).